

1970년대에 창작된 영화문학을 연구하는것은 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김 주 일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놓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 시키는데서 1970년대에 창작된 영화문학을 연구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1970년대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문학 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285페이지)

1970년대에 창작된 영화문학을 연구하는 것이 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시기 영화예술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하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함으로써 전례없는 영화문학창작성과가 이룩되고 이 과정에 문학작품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경험들이 마련되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혁명발전과 문학예술에서 영화예술이 노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영화예술부문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면서 영화예술의 사명과 임무,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주체적영화

예술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당의 문예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참다운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앞장에 영화예술부문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영화예술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주체적문예사상이 구현된 성과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어나옴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례없는 영화문학창작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력사적인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고 영화문학 《유격대의 오형제》(1~3부)와 같은 혁명적대작이 창작되였다.

이 과정에 혁명적영화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왔다.

1970년대는 영화문학이 활발히 창작되어 영화예술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뜻깊은 년대였다.

영화예술의 화폭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주체66(1977)년에 우리 인민이 오래동안 념원하여오던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문학예술작품에 모시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예술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1978)가 성과적으로 창작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1979)를 각색한 혁명영화가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되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체의 예술영화들도 수많이 창작되었다.

인민상계관작품들인 영화문학 《로동가정》(상, 하, 1971), 《꽃피는 마을》(1970)과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1977), 《사과 딸 때》(1971), 《산정의 수리개들》(1975), 《대지에 뿌리내린다》(1976), 《빛나는 세대》(1978), 《화선에서 부르던 노래》(1972), 《목란꽃》(1~3부, 1971~1976), 《다시 만난 전우》(1975), 《잊을수 없는 사람》(1976), 《축포가 오른다》(1978), 《금희와 은희의 운명》(1974), 《혈육》(전, 후편, 1979) 등이 창작되어 영화로 옮겨졌으며 경희극적양상의 단편영화들도 창작되었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방법론적문제들이 밝혀졌으며 풍부한 경험이 마련되었다.

결과 우리 당의 종자론을 작품창작에 구현하는 문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문제,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문제, 문학작품에서 양상과 구성조직을 다양하게 탐구, 활용하는 문제 등 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서 귀중한 경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들은 1980년대로 이어져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억속에 남는 훌륭한 영화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오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1970년대에 창작된 영화문학을 연구하는 것이 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관점에서 변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키고 그 불길이 문학예술전반에서 타오르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영화창작의 주체는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관점과 자질에 따라 훌륭한 영화문학, 사람들의 심금을 들어잡는 영화가 나온다.

훌륭한 영화문학이 나오는 생활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총포란이 울부짖는 전장이나 그 어떤 특수한 환경만이 훌륭한 영화문학의 바탕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누구나 늘 보아오는 생활, 평범한 사람들 속에 시대정신도 있고 본보기도 있으며 심오한 인간문제도 있다.

1970년대 영화문학은 시대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소재를 잡았다.

현실주제작품이든, 조국해방전쟁주제작품이든 작품들에는 1970년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상태가 반영되어있다.

1970년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던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섰다.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 혁명발전의 흐름을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1970년대에 창작된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 《사과 딸 때》 등에서 반영된 생활들은 비록 그 시대적배경이 각이해도 모두 해당 시기 우리 인민의 생활그대로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오늘도 존경과 함께 애뜻한 정을 담아 불리워지는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의 《태성할머니》와 영화문학 《꽃피는 마을》의 《리기주의령감》은 당시 농촌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작품들에서는 평범한 인물들과 그들의 소

박한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심정을 보여주었고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땀과 노력을 바칠 줄 아는 인간으로, 사회주의 농업 근로자로 성장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의 작가들은 이렇듯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시대를 호흡하였으며 강연문적인 대사하나없이 늘 보아오는 생활, 늘 들어오는 소박한 말 그대로의 화폭으로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랑을 받는 영화문학을 창작하여 예술영화창작에 이바지하였다.

1970년대로부터 세월은 흘러 혁명은 전진하고 시대는 발전하였다.

사람들의 사상미학적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 들끓는 혁명의 흐름을 심장으로 감수하고 창작에 구현한 1970년대 작가들처럼 훌륭한 영화문학대풍으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

영화부문이 들끓을 때 문학예술전반이 들끓는다.

1970년대처럼 문학, 미술, 화술, 음악 등 문학예술의 종합체인 영화부문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명작대풍을 안아오고 그 경험을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것은 영화문학작가들이다.

문제는 영화문학작가들의 사상관점에 달려있다. 모든 영화문학작가들은 높은 창작성으로 당을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작가적열망, 세계적인 명작을 써내려 조국의 영예, 작가적명성을 떨쳐보려는 야심으로 불타야 한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아무리 현실에 몸을 담고 살아도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

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써내려 작가적사명을 다하려는 열망이 없다면 시대의 본질, 생활의 본질을 볼수 없으며 도식과 틀에 매이고 잔재간을 부리며 구태의연하고 인위적인 글만을 써내게 될것이다. 아무리 작가로서 재능이 있다고 해도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수할줄 아는 심장을 지니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영화문학을 창작할수 없다.

영화문학작가들의 사상관점이 바로서야 높은 자질도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활용할수 있고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질을 높이려는 불타는 정열도 나올수 있다.

생활을 보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관점, 평범한 생활속에서 들끓는 시대의 요구와 그 흐름을 찾을줄 아는 작가적안목, 심오한 문제를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보여줄 줄 아는 창작수준과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련마한 자질의 높이, 놀라운 작가적자질을 인민의 미감에 맞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도 다 영화문학작가들의 사상관점에 달려있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사상관점에 불을 걸어 사고방식과 창작기풍, 창작태도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자면 1970년대의 영화문학작가들처럼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들끓는 생활에 뛰어들어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서서는 훌륭한 글이 나올수 없으며 글재간, 흥미본위의 글밖에 나올수 없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아무리 흥미있는 생활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를 담고있지 않고 인민들의 사상정서적미감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또 심오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가공된 생활이나 인위적인 인물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어색함을 안겨주고 사람들의 조소만을 자아낸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인물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얼굴표정은 물론 생활의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 공정에서 자그마한 거짓도, 인위적인 꾸밈도 없어야 하고 평범한 인물, 보통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시대를 알게 하고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종자를 잡고 소재를 잡은 다음에는 전격적으로, 전투적으로 와닥닥 끝내야 한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생활에서 찾은 창작의 싹을 불이 번쩍나게 작품으로 구현하는 창작정신, 창작기풍을 소유하

여야 한다.

1970년대 작가들처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시대를 선도하고 행복과 량만을 안겨주는 영화문학을 창작하는것은 오늘 영화문학작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모든 영화문학작가들은 혁명적영화예술의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 사회에 활력을 부어주는 영화문학을 하루빨리 창작해냄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